國語教育學의 下位 領域 設定 方向

이 용 주 (서울대 교수)

.I

國語教育學의 확립을 위해서 그 하위 영역의 설정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 설정은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의해서 그 방향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은 피교육자의 국어사용능력의 신장을 돕기 위한 계획적인 교육·훈련 행위이다. 그리고 국어교육학은 국어교육의 全過程에 관한 지식을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체계화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1]

국어교육의 全過程이라고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잡느냐가 문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어교육의 핵심은 교수 행위에 있지만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과 학습의 결과를 측정 확인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

① 教育課程
② 教材
③ 教授法
④ 言(國)語學習

---

1)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어교육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언어학습, 언어교육, 언어사용능력 신장과 같은, 언어의 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⑤ 學習評價
⑥ 教師養成

이와 같이 많은 문제들이 국어교육의 문제를 그 연구 범위 안에 포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위 부문의 문제 또한 이런 범위 안에서 찾는 것이 정상이다.

Ⅱ

국어교육의 하위 부문이라고 생각되는 용어법이 일찍부터 있었다. 말하기교육, 듣기교육, 쓰기교육, 읽기교육, 그리고 문법교육, 발음교육, 시교육, 소설교육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國語教育學이라는 것의 定立같은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시절부터의 용어법이었으므로 꼭 국어교육학의 하위 부문 설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은연중' 국어교육의 하위 부문쯤으로는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용어법 내지 分類法에는 몇까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① 우선 이들 용어법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內容領域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과정에서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는 그대로 四分法을 택하기로 하고 표현과 이해로 한 단계 상위의 분류법에 따라 내용영역을 제시하였다. '문법교육'이란 교육과정 내용영역의 '언어' 또는 '언어지식'의 하위부문이며 '시교육', '소설교육'은 교육과정 내용영역 '문학'의 하위 부문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은 다른 항목들을 보충해서 그 상위 부문으로 언어(지식)교육, 문학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각각 유형화할 수 있다. '발음교육'은 '말하기'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技能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하기'의 문제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② '문법교육'은 '언어지식' 내지는 언어학(지식)의 교육이고 '시교육', '소설교육' 등은 문학교육이라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교육은 非言語學教育, 非文學教育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언어학이라던가 그 하위 부문인 문법이라는 것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능력 신

장을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니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副次的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문학'의 경우는 특히 '읽기'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데서 갈등이 생긴다.

③ 문법교육, 시교육, 소설교육 등을 그 상위 개념인 언어학(지식)교육, 문학교육이라 하면 이는 국어교육과정의 내용영역 체재와 가깝게 되는데 이러한 분류법은 교육과정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표로 보인다.

국어교육 ┬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표현, 이해) --> 技能
　　　　 ├ 언어(지식) --> 학문
　　　　 └ 문학 --> 藝術·學問[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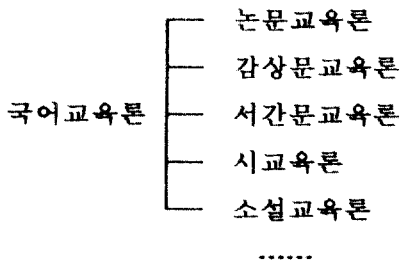
이들을 같은 차원에서 竝列된 국어교육의 내용이라고 하면 국어교육은 技能과 學問과 藝術이 綜合 내지는 統合된 教育이라는 데 귀착될 수 밖에 없다.

또 '언어', '문학'이 어느 수준까지 다루어지느냐도 문제되거니와 이들이 專門教育이냐 아니면 基礎教育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어야 한다.

④ 이들 용어법은, 순수한 언어이론이나 문학이론 또는 비평의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 教材로 다루어지는 문장의 내용이나 장르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시교육이나 소설교육이 문학작품의 교수 학습의 문제라면 非文學言語作品인 論文이나 感想文 또는 日記나, 書簡文, 廣告文 등 實用文이라고 하는 여러가지 문장을 교재로 택하는 경우 모두 論文教育, 感想文教育, 日記教育, 書簡文教育 등등으로 확대되는 일이 불가피하다. 이들에게 '學'이나 '論'을 붙여 모두 국어교육학의 하위 부문의 하나씩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와 같은 구분이 教材나 教授法 등의 차원에서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지만

---

2) 教育法의 규정처럼 情緒教育을 위한 文藝의 문제라면 예술의 문제지만 문학이론이나 비평의 문제가 주로 된 듯한 요즈음의 형편에서는 학문의 문제를 배제할 수가 없다.



등과 같이 국어교육학의 하위 부문으로 설명하는 데는 많은 문제들이 걸림돌이 된다. 이런 용어법에 의해서 代表되는 문제들이 국어교육이나 국어교육학의 어떤 부문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⑤ 이렇게 半은 開放된 분류 항목에 '교육'이나 '교육학(론)'을 붙이는 경우 그 하나하나에서 하위 부문으로 '교육과정', '교재', '교수법', '평가' 등등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요컨대 이렇게 하여 설정된 하위 부문이 과연 국어교육학이라는 한 학문의 하위 부문으로서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충분한 자격을 가지는지 의심스럽다. 국어교육학이라는 테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국어교육(학)과의 관계없이 '문법'이나 '시', '소설'을 독립 교과로 가르치는 전문교육의 경우라면 특별히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專門性과 非專門性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어서 더욱 복잡해진다.

Ⅲ

국어교육 全過程을 적절히 분할하여 국어교육 연구의 하위 부문을 설정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다. 이런 용어법이나 하위 부문 설정의 예로는 教育學을 들 수 있다. 교육학의 경우 이런 용어법이나 분류 방법은 거의 定着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국어교육에서도 이러한 용어법의 도입이 거

의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① 우선 몇 부문으로 나눌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특히 언어발달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다루어져야 한다면 독자적인 부문이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과정 안에서 자리잡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다. 원칙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교육목표나 교육내용은 언어발달의 조사·연구에서 얻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3]

② 이렇게 설정한 하위 부문이 그 性格上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국어교육학의 하위 부문으로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평가의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이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국어교육 전문가에게 주어진 중대하고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국어교육의 綱領의 문제이며 核心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해결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지 결코 회피해야 할 그런 방해물이 아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학문의 포기다. 다른 예를 든다. 교육과정 에서 제시해야 하는 교육목표나 교육내용이 어떻게 抽出되고 어떻게 배열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처럼 수업의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과연 교수법 연구 과제의 전부일 수 있는지 하는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教科書의 체재나 내용 역시 근본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극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비로소 연구가 필요하고 학문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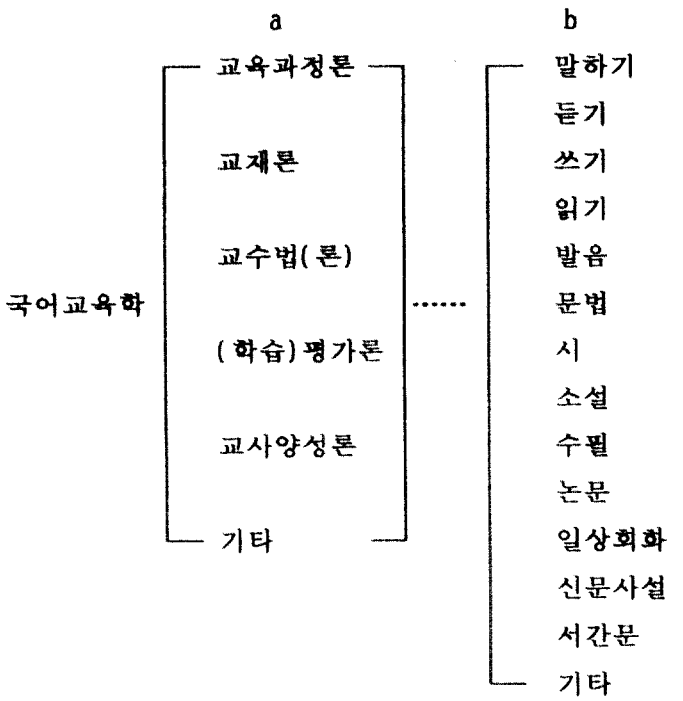
3) 요즈음 대중매체의 보급 발달로 사람의 成長期別 언어 발달 특징을 조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조사된 자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의문까지도 실제로 언어발달을 조사 연구해 본 다음에라야 밝혀질 수 있다.

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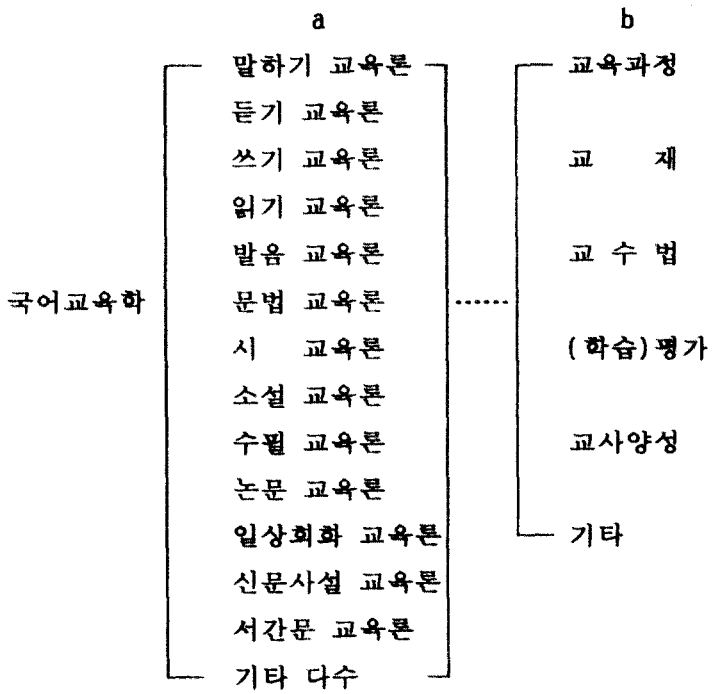
교육과정, 교재, 교수법 등등으로 분류된 部門이나 그러한 용어법, 그리고 문법교육, 시교육, 소설교육 등의 용어법이나 분류 방법이 국어교육학의 어느 部分에선가 한번은 꼭 제기되어야 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다루어지는 선후관계나 위치에 따라 합리성이 달라지고 학문적 체계화의 巧拙이 달라질 것이다.

다음 A와 B는 설명을 위하여 위에서 거론한 두 가지 용어법이나 분류방법의 上下位 관계를 假想해 본 것이다.

A



B



A는 국어교육 全過程을 적절히 분할하여 국어교육학의 하위 부문을 삼은 것이고 B는 教材로 사용된 문장의 내용이나 장르를 분류하여 국어교육학의 하위 부문(?)을 삼은 것이다. a는 국어교육학 直下位 부문으로 假定한 것이고 b는 a의 直下位 또는 次次 계층에서의 부문으로 假定한 것이다. a의 각 항목 하나하나에 b의 모든 항목이 하위 부문으로 설정되는 것을 보인 것이다.

A와 B를 비교해 보면 직감적으로 어느 편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B a의 각 項의 학문이 인정될 수 있다면 국어교육학을 하나의 原理에 의해서 體系化되는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음운론이나 문법은 언어학의 하위 부문으로 인정하지만 母音調和나 適格文, 成分 配列의 順序를 언어학의 하위 부문이

라고 하는 이는 없다. 그것들은 언어의 구체적인 현상이요 규칙이기 때문이다. 위의 b는 예컨대 교육과정의 경우라면, 교육목표나 교육내용의 구체적인 提示項目으로 다루어질 성격의 것이다. 이런 항목에 '論'이나 '學'을 붙여서 국어교육학의 하위 부분으로 설정하는 일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V

自然科學의 경우와 달라서 국어교육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립될(?) 학문의 하위 부문을 설정하는 科學的인 근거, 객관성을 추구하는 일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소위 人文學이니 情神科學이라는 것에 비해, 사회과학으로 분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국어교육학의 문제가 客觀性 追究를 더 바란다지만 그 모든 문제가 과학적·객관적으로 實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다만 다른 것보다 矛盾이 적도록 體系化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국어교육(학)의 경우 체계라던가 학문이라던가 하는 의식 없이 처리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재검토와 비판이 필요하다.